

플꽃향기 은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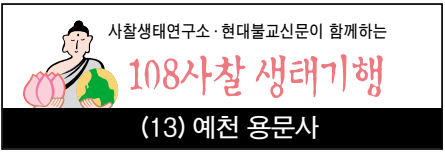
‘나비의 절’



◇예천 용문사전경.



◇사진 위에서부터 용문사숲길, 지느러미 엉겅퀴, 기린초, 초롱꽃, 홍점 일락 나비. 사진 왼쪽은 모시나비.



산이 깊지 않아 갈수기에 이끼 마를정도 잔디에만 의존한 조경, 경관가치 떨어져 경내 일사량, 초본류 많아 다양한 나비 서식

예천 읍내에서 용문사까지는 시내버스로 20여분 거리다. 그냥 앉아있으면 버스가 용문사 코앞까지 데려다 주지만, 굳이 삼거리에서 내리는 까닭은 세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옛 스님들의 만행길을 밟아보고 싶어서다. 삼거리에서 용문사까지는 10리길. 비록 포장된 길이지만, 개울과 논을 끼고 한갓길 길이다. 모내기를 끝낸 논들은 파스텔처럼 은은하고, 감자밭엔 감자꽃이 하얗다. 삐죽, 삐죽, 삐죽... 어디선가 삐죽기 소리 들린다. 주차장에 이르러 멀리 매봉이 늠름하게 다가온다. 해발 865미터의 매봉은 소백산 줄기가 죽령으로 내려와 두솔봉(1314)을 거쳐 저수령에서 월악산으로 가다가 한 줄기가 남으로 내려와 땃힌 소백의 지붕이다. 매봉 너머는 문경 땅이다. 용문사는 바로 그 매봉의 남쪽 줄기에 앉아있다.

용문사 창건설화의 주인공은 회방사를 세운 신라 경문왕 때의 인물 두운(杜雲)선사다. 후삼국을 아우르던 고려 태조가 군사를 이끌고 초암(草庵)에 살던 두운선사를 찾아왔을 때 홀연히 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용문사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용문사 들머리 숲은 갈참, 느티, 현사시 등등의 노거수들이 입승을 서고 있다. 산문 옆으로는 개울이 내려온다. 용문사는 산이 깊지 않아 봄이 많지 않은 절이다. 갈수기에는 개울의 이끼들도 목이 마를 정도다.

일주문을 지나면 부드러운 돌계단이 경내로 안내한다. 어두운 숲터널이 끝나자 갑자기 시야가 환하게 트인다. 마치 좁고 긴 나팔관을 지나온 자궁 같은 형국이다. 겹겹이 쌓은 높고 낮은 석축 위에 용문사가 전경으로 앉아있다. 노장 같은 극락보전 뒤로 매봉의 막내쯤 보이는 낮은 산이 내려와 있다.

주위의 산이 낮고 나무가 없어서인지 경내는 뭔가 풀어진 느낌을 준다. 그것은 자연이 손을 많이 댔다는 이야기와 같다. 게다가 경내 조경을 잔디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경관생태학(Ecological Landscape Planning)적 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이다.

자운루는 일진왜란 때 사부대중이 승병들의 직신을 삼던 곳으로 전해진다. 다들지 않은 주춧돌 위에 누하주(樓下柱)가 그랜이로 절묘하게 서 있다. 대장전은 보수공사 중이다.

극락보전 주변으로 몇 그루의 잘 자란 잣나무, 일본이

꽃나무, 전나무가 이웃살이를 하고 있다. 그 옆에 전나무 고사목 한 그루가 필름을 당해 누워있다. 고사목은 베어 없애는 것보다 그대로 세워두는 것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다. 각종 새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극락보전 뒤 경사진 목발엔 풀숲이 제철을 만나 우거져 있다. 솜바귀, 질경이, 애기뽕풀, 머위, 지렁이, 작약, 쪽두서니, 쉼, 엉겅퀴, 쇠뜨기, 매꽃, 달래, 원추리, 개꽃, 애기나리, 패랭이.....

사람들은 흔히 이것들을 잡초라고 부르지만 세상에는 잡초라는 게 없다. 다만 그것의 이름을 모르고, 그것들의 쓸모를 모르고, 그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잡초라고 불러버리는 것이다.

철따라 꽃 피고 지는 이 풀숲은 곤충들의 도솔천이다. 벌나비에 이어 벌써 메뚜기와 여치와 귀뚜라미들도 여기저기서 툄툄 튀기 시작했다. 또한 곤충이 있기에 새들도 날아든다. 나무만 있다고 해서 새가 날아드는 게 아니다. 짙집은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야 짙집이다.

용문사의 초여름 꽃은 엉겅퀴가 여왕이다. 그러나, 용문사 경내 곳곳에 엉겅퀴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것은 본래의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초여름의 용문사는 나비의 절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다양한 나비들이 선을 보인다. 모시나비, 홍점일락나비, 왕세줄나비, 네발나비, 긴꼬리제비나비, 산제비나비, 노랑애기나방, 세줄나비, 빨나비.....

용문사에 비교적 다양한 나비들이 나타나는 것은 절이 앉은 터가 넓어 일사량이 많고, 경내에 초본류들이 많기 때문이다. 용문사의 꽃들은 사람들이 버린 땅에서 더 다양하게 피고, 벌나비들도 군데군데 버려진 풀숲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유감스럽지만, 자연은 사람들이 버린 공간일수록 더 싱싱하게 자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용문사 주변은 남방과 북방을 잇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우리 풀꽃들이 많은 편이다. 잔디를 걷어내고 우리 풀꽃을 중심으로 초지를 조성해놓으면 더 많은 종류의 나비들이 모여들 것이다. 생태적으로 이렇다할

특색이 없는 용문사에서는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교토에 서방사(西芳寺)라는 절이 있는데,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1년 내내 푸른 이끼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아예 절 이름을 이끼절(苔寺)로 바꿨다고 한다. 생태관광객들이 태사의 이끼를 보기 위해 줄을 잇는다고 한다.

경내 오른쪽 개울을 끼고 등산로가 나 있다. 매봉까지는 4킬로미터,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두 시간 남짓 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숲 속 일상에는 노루발, 으아리, 솔밭꽃, 등글레, 애기나리, 김의털, 덕덕 등과 같은 초본들이 자라고 있다. 관목층에는 진달래, 철쭉, 쥐똥

나무, 국수나무, 조록싸리, 산초나무, 생강나무, 오갈피 등이 자리하고 있다. 키 큰 교목으로는 소나무와 참나무류를 비롯해 서어나무, 툄퉄레나무, 오리나무, 물박달나무, 때죽나무, 쪽동백나무, 팔배나무, 산팽나무, 단풍나무, 말레나무, 다래덩굴, 잣나무, 산뽕나무, 층층나무, 불나무 등이 보인다. 그러나, 수령들이 모두 50년 미만인 것으로 미루어 그 사이에 산파이나 산불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참나무로는 굴참과 갈참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숲속 어디선가 등검은뱀구기 소리가 들린다. 아래쪽 숲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 삐죽기, 직박구리, 멧비둘기, 어치, 까마귀들이 뒷세를 부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등검은뱀구기를 비롯해 딱다구리류와 박새류들이 관찰되고 있다.

용문사 뒷숲은 나무의 종류도 다양하고 비교적 층위 구조가 고른 편이다. 게다가 조류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숲 속 학교라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자연공부를 시키면 좋을 듯하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에도 최고! 성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해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지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리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들을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광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년무야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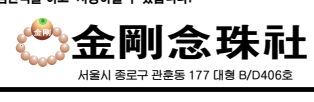
금강염주를 받으신 사용 하실분은 꼭 개뿔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 높은 곳에 올려 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8cm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천하로 주선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통기소로 전국 어디서나 믿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쾌한 숙면 신비의 은행석편지 건강한 하루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30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떨어지지 기미가 줄어들고 하안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잔 것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30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 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을 잡아라 장수 호두약돌 생명의氣

향토생명공학 센터에서 활토와, 음이온, 원적외선, 기(氣)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님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시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 운동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기를 발산하고 건강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활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놓아 떨어지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氣를 체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수술을 받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

※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